

# 협력업체 정상화 · 지역경제 활성화 온힘

### 군산시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익산시 협력업체도 혜택... 산업다각화 지원 19억원

지난 5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군산시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원대책 후속 조치인 자동차 경쟁력제고 R&D사업 등의 주요사업에 익산시 협력업체가 혜택을 받게 됐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 협력업체가 혜택 받게 될 산업위기대응 특별 지역 주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경쟁력 제고 R&D 과제중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 1,000억원 산업다각화 지원사업 19억원 등이 지원사업 대상이다. 고용위기 지역 주요사업은 사업전환·재창업자금 지원강화 용자 2,500억원이 현재

시행중이며,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 용자 2,500억원 등은 지원사업 대상이 될 예정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요사업은 5월 중 협력업체에 지원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6월~7월 중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아 8월부터 수혜기업 선정 및 사업 수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대책은 익산시 협력업체의 매출감소를 중장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 부가가치 및 사업전환에 도움이 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자체 지원사항으로 도시

가스 요금 징수(남부)유예 3개월 분 합납부 3개월 등 총 6개월 유예기간 지원으로 연체료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및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 연장 및 징수유예·체납 처분 등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세무조사 중지 또는 유예를 실시한다.

상하수도 요금 유예 및 연장 지원은 6개월 이내 징수(남부)유예기간 지원으로 연체료 감면 및 요금 납부기한 연장 30만원 미만 3개월 30만원 이상 6개월 납부유예를 올해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한국GM 폐쇄 결정에 따라 협력업체 위기대응 간담회 1차

협력업체 (주)H글로벌 기업 현장행정으로 납품 감소로 인한 재정 및 고용 상황 파악, 익산시 협력업체가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 요청 등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발빠르게 대처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협력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행정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협력업체 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 익산시, 전국체전 성공 개최 준비 토론회 개최

2018 전국(장애인)체전 주 개최자인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11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김철모 부시장 주재로 13개 주요부서장과 익산시 체육회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목표로 환경 업체와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국(장애인)체전이 체 2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체전 경기장 시설, 홍보 개·폐회식 지원 환경정비, 익산시탕운동 전개, 숙박 교통 음식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추진방향 및 문제점에 대해 집중했다.

특히 환경정비 분야에서 음면특별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주요 도로변에 벽화 조성 건축물 환경정비, 도로 환경정비, 불법노점상·광고물 정비, 가로경관 조성 꽃길 조성 등을 통해 시를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람객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익산시의 이미지를 심어 주어 익산시의 재방문을 유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했다.

김철모 부시장은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체 2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부서들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여 차질 없는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목표로 환경 업체와 열린 익산민들기 협약식을 체결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민들기에 힘쓰기로 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버스·숙박업·외식업 업체와 친절한 익산민들기 협약식을 통해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전국(장애인)체전 범조성을 위해 시민홍보대사 58명을 위촉했고 매일 12일을 전국체전의 날로 지정하여 시민홍보대사와 일반익산시민들, 익산시 종합행정담당부서 직원들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뿐만 아니라 익산우체국과 홍보업무 협약 체결, 2018 전국체전 표어 공모전 개최, 페이스북 전국체전 마스코트 이름짓기 이벤트, LED전광판 홍보 방송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국체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 군산시, 경기회복 위한 국가예산 확보 총력

### 한국지엠 군산공장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마련 보고회 열어

군산시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올해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로 인한 지역경제 제전반에 걸친 침체를 최소화하고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예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 발굴 단계부터 전북도와 유관기관,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지난 3월 국가 예산 확보 보고회를, 4월에는 김관영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며 한국지엠 군산공장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보고회를 열었다.

주요 추진예정사업으로는 신산 진입도로 중 미확장 구간에 대한 해방로 확장사업이다.

또한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한 산업물류단지 구축을 위해 철도 수송 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새만금선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현재 건설 중인 군장산단 인입철도와 익산-대야 복선전철을 통해 새만금 신항에서 서해안 철도 호남선 철도까지 연결되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화동·월명동 일원의 관광 자

원을 위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원사업,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챔버리 대회 참가자의 이동수단을 확보하고 한중 경험 단지 조성 등 대중국 인력·관광·물류 수송 확대 및 글로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회 개최 이전에 새만금국제공항을 조기에 완공하고 장자도에서 관리도의 연육교를 가설하는 국도4호선 잔여구간 개설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인수 건설교통국장은 "군산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의회,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촉

군산시의회가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11일 군산시의회 의사실에서 고석원 군산시의원을 비롯한 김영현(김영현 회계사무소), 김재민(김재민세무사무소), 김덕이(전 지역경제과장), 김진권(전 자치행정국장) 등 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금고의 결산 등 예산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타당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또한 결산검사를 통해 올 한해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내년도 예산을 보다 내실 있게 편성하는 지침으로 삼을 예정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등 따져나갈 방침이다.

박정희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위촉되어 기대가 매우 크다."며 "지난해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히 살피서 군산시의 제정이 더욱 투명하고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고군산군도 교통소통 위한 대책 추진

군산시는 고군산 연결도로에 대거 투입되는 나들이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방문객 편의를 위해 다양한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11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고군산 연결도로 전면개통에 따라 관광객이 증가해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기완공 및 대중교통수단 증차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 지도차량을 배치해 불법주차 등 교통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선유도 내부도로를 확장공사 완료 시까지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고 예산 58억여 원을 투입해 선유도 보전소 앞 등 7개소에 공영주차장 1,501면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행하고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차량방안을 마련하고 전담 지도차량을 배치해 불법주차 등 교통질서 확립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세진산업 현장행정... 여성기업 애로사항 청취

익산시는 11일 국가산업단지 내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체인 세진산업(주)을 방문해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번 현장행정은 2017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모범 여성기업 대표인 김숙자 세진산업 대표와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혁신성장을 이끈 석재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자 한다.

김숙자 세진산업 대표는 "산현현장에서는 아직도 여성이 대표라는 편견

이 있지만 여성의 섬세함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의적 사고로 지속적인 석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고 우수한 제품 경쟁력은 편견을 뛰어 넘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여성기업이 사회적 책임이 지역 경제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이 당해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

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나, 여성이 소득세 제188조 부가과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한다.

한편 세진산업(주)은 1978년 창립 이래 40년간 국내외 석제품을 공급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석재기업으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다수의 특허와 디자인 등록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 '드론과 함께하는 백제왕도 익산여행' 14일 스타트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오는 14일부터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재사업 '드론과 함께하는 백제왕도 익산'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박정희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위촉되어 기대가 매우 크다."며 "지난해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히 살피서 군산시의 제정이 더욱 투명하고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시 곳곳에 위치한 문화재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백제와 익산 토착세력과의 교류 및 위상을 보여주는 익산 입점리 고분(사적 제347호) ▲백제무왕이 건설한 왕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익산 왕궁리유적(사적 제408호) ▲무왕과 선화공주의 능으로 전해지는 익산쌍릉(사적 제87호) ▲무왕의 탄생지로 알려진 서동생가터에서 진행되며 각 일자별로 프로그램 및 장소에 행사내용의 차이가 있다.

세부프로그램으로는 당해문화재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문화재상상벽화, 문화재와 참가자, 참가자와 참가자가 연결되는 의미가 있는 인연의 끈 체험 출토유물을 활용한 캐릭터 만들기 등 드론을 활용한 문화재 체험 희망다짐과 모비명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어린이 행복동행

풍화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www.jmaeil.com

익산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